

논문 심사 규정 및 게재 원칙

I. 논문 심사 규정

1. 논문 심사 절차

- (1) 편집위원회는 불교학연구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원고 및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위촉하고 그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선정은 불교학연구회 윤리규정 제2장 제4조 7항의 규정에 따른다.
- (2) 심사위원 3인은 심사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3) ‘게재’는 특별한 수정 없이 실을 수 있는 경우, ‘수정 후 게재’는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야하나 논문의 본래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 ‘수정 후 재심사’는 내용을 수정했을 경우 논문의 본래 취지가 달라지는 경우, ‘게재불가’는 표절인 경우, 『불교학연구』 학술지의 근본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내용이 게재하기에 부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 (4)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가 요구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수정본을 확인하여 게재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의 심사 때에 수정된 사항을 확인한 후 재심사한다. 단, ‘수정 후 재심사’ 판정 후 수정 논문을 다음 호에 미제출 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이 논문을 게재 불가로 확정하고 통보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에게 사전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통보한다.
- (5) 심사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한다.

- (6)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투고는 1회로 제한한다. 단 전회차 투고 논문과의 동일성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7)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 (8) 외국어 논문은 해당 언어에 능통한 심사위원 2인 이상의 판정을 따른다.
- (9) 외국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번역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투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 학술지 편집자의 허가를 받은 논문에 한하며, 이러한 논문은 본 학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될 수 있다. 논문 제출 시에는 이미 발표한 논문의 원본, 게재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수정한 논문의 각주에 원 논문의 서지 정보와 게재 허가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 (10) 편집위원회는 심사 위원에게 최소 3주 이상의 심사기간을 보장한다.
- (11) 편집위원회는 규정된 심사기한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심사회의를 거쳐 게재논문을 선정하고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고지한다.
- (12) 이상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2. 논문 심사 기준

- (1) 『불교학연구』 논문 게재 원칙 및 집필요령에 맞는 체재를 갖추어야 한다.
- (2) 논문의 주제의식과 논제가 명확하며, 타당한 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 (3)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논제, 개념, 논거, 관점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 (4) 1차 또는 2차 문헌들에 대한 단순 해석, 정리, 요약에 그친 논문들은 권장하지 않는다.
- (5) 관련 분야에 대한 기초문헌과 2차 문헌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6) 특히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 연구 논저들에 대한 논의를 적극 권장한다.
- (7) 논문 주제가 향후 불교학 연구에 기여해야 한다.
- (8) 국문과 영문 초록의 분량과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3. 게재 논문의 선정 기준

(1) 편집위원회는 아래의 심사 판정을 기준으로 논문의 선정 및 탈락을 결정한다.

<심사 판정표>

심사결과				최종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AAA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AAB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AAC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ABB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ABC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BBB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ACD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ADD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BBD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BCC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BCD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CCC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BDD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CCD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CDD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DDD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AAD	편집위원회 심사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ABD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ACC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BBC	

(2) 게재 논문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상의 판정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탈락논문의 이의제기

논문투고자는 논문심사와 관련해서 3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논문 중 게재불가 판정논문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회 게재결정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당호에 게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편집위원회 게재결정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사개시 절차에 대한 가부판정을 내리며, 가판정이 내려진 경우 관련 전공분야 편집위원 2인 이상이 이를 재검토 후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고 이후 참석 편집위원 2/3이상의 동의로 당호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5.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II. 논문 게재 원칙 및 원고 작성 요령

1. 논문 게재 원칙

- (1) 불교학연구회의 회원이며, 당해 연도까지 회비의 결납이 없는 회원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규대학의 박사과정생 이상으로 제한한다.
- (2) 논문의 내용은 불교학 및 그와 관련된 학술연구논문으로 한다.
- (3) 논문의 채택여부와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4) 연구윤리강령 제3조 3항에 의거 중복(이중) 게재신청을 불허한다. 같은 심사 시기에 다른 학회에 중복게재 신청하거나, 제목을 일부 변경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게재 신청을 하는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게재불가’ 처리되며, 향후 2년간 투고를 제한한다.
- (5) 투고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특정인을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기피하고자 하는 심사자의 ①이름, ②소속, ③기피사유를 적어 편집위원장 앞으로 신청하면, 1인에 한하여 심사자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 (6) 국문초록의 분량은 원고지 분량 최소 800자에서 최대 1000자 이내로 제한하며, 미달이나 초과 시에 ‘투고 접수’가 거부될 수 있다.
- (7) 『불교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불교학연구회에 귀속된다. 단 저자 본인의 개인적 사용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이양 및 활용에 대한 권한 대행에 동의하는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8)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불교학연구』 논문 심사 규정 및 게재 원칙과 연구윤리 규정에 동의하고,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9)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의 분량

- ① 논문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되, 최대 180매까지로 한다. 150매를 초과한 논문은 초과분량에 따른 추가 게재료를 징수한다. 외국어논문의 경우 위 원칙을 기준으로 하되 편집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② 워드프로세서 「한글(HWP)」로 작성하며, 글자 크기는 본문 11pt, 인용문 9pt로 한다. 줄간격은 160%, 자간은 0, 장평은 100으로 한다.

(2) 논문의 작성방법

작성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갖추어야 한다.

* 논문투고시:

제목-목차-국문초록(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제목-영문초록(키워드)

* 게재확정시:

제목-필자명(소속, 직위, 이메일)-목차-국문초록(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제목-영문 필자명(지위, 소속)-영문초록(키워드)

① 제목 및 이름

가. 제목 위에 “『불교학연구』 제○호(연도, 월)”이라고 밝힌다.

예) 『불교학연구』 제50호(2017, 3)

나. 필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명기한다.

(단,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다. 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공동저자의 성명을“.”으로 구분하여 병기 하되,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좌로부터 제 1저자·제 2저자(계속시 추가) 순으로 기록한다. 교신저자는 괄호 속에 교신저자임을 표기한다.

② 국문 초록과 주제어

가. 국문초록의 분량은 원고지 분량 최소 800자에서 최대 1000자 이내로 작성한다.

나. 주제어는 7개로 하며 국문 초록 끝에 작성한다. 주제어에 인명이 포함 될 경우 생몰년을 병기한다.

③ 본문

가. 논문은 국문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국문초록을 첨부한다.

나. 장, 절, 항, 목 등의 번호는 I. → 1. → 1) → (1) → 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다. 한국어 표준어를 사용하되 외국어, 외래어, 전문 용어, 인명, 지명, 서명, 작품명 등 원어 혹은 고유어는 첫 번째에 한하여 괄호() 속에 병기한다.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한 논문에서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로마나이즈된 원어 개념어는 기울임체한다.

예) 구마라집(鳩摩羅什, Kumārajīva, 344-413); 영축산(靈鷲山); 요의(了義, *nīārtha*); 타공(他空, *gžhan stong*); 『화엄경(華嚴經)』

라. 한글 발음에 대응하는 원어의 경우 괄호() 속에, 풀이하는 말에 대응하는 원어의 경우 대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화택유(火宅喻), 물질적 음식[段食]

마. 성명(姓名)은 붙여 쓰고, 자(字)와 호(號) 등은 성명 앞에 쓰며, 가장 최초 언급 시 생물연대를 성명 다음에 표기한다.

예) 한국인명 : 김유신(金庾信, 595-673),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

일본인명 :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1912-1999)

서양인명 : S. 레비(S. Levi, 1863-1935)

인도인명 : 구나마티(Gunamati, 德慧, 생물년 미상), 청변(淸辯, Bhāviveka, 490-570 경)

바. 같은 계열의 말이 이어질 때는 쉼표(,)를 사용하고, 한 성분이 동등한 2개 이상의 단위로 구성되었을 때에는 그 사이에 가운뎃점(.)을 사용한다.

예) 오온, 십이처, 십팔계

색·수·상·행·식

사. 품(品), 편(篇), 논문명, 신문명은 낫표(「 」)로 표기한다.

아. 저서 제목은 동양어권 저서명, 학술지명의 경우 겹낫표(『 』)로, 서양어권 저서명, 학술지명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동양어권: 『韓國佛教概論』

서양어권: *Philosophy and Psychology in the Abhidharma*

자. 강조는 홑따옴표(‘ ’)로 표기한다.

차. 표와 그림은 <표1>, <그림1>과 같은 형식으로 일련번호를 지정하여 상단에 표기한다. 단, 출처를 밝히고자 할 때에는 하단에 “출처: ○○ ○○”라고 표기한다.

카. 본문의 인용문

ㄱ) 직접인용일 경우 3행 이내는 따옴표(“ ”)로써 문장 안에 기술한다. 3행 이상일 때는 따옴표를 쓰지 않고 행을 바꾸어 들어서 문단을 설정한다. 인용문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는 작은 따옴표(‘ ’)로 표시한다.

ㄴ) 원전(原典)을 인용할 때에도 이를 따르되 한글로 해석하여 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원문은 각주에 따옴표(“ ”)로써 표기한다.

ㄷ) 시나 계송을 인용할 때 3, 4행 정도는 문장 안에서 다루고, 그 이상일 때에는 독립된 문단으로 기록한다. 문장 안에서 인용할 경우 행과 행 사이는 /으로, 연과 연 사이는 //으로 표기한다.

ㄹ) 인용문의 처음과 끝 부분을 줄이거나 생략할 때에는 ‘...’로, 중략의 경우는 ‘... 중략 ...’으로 표기한다.

ㅁ) 인용원문에 오기, 혹은 오류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교정하여 모난 묶음표([])로 표기하고 각주에 오기, 혹은 오류의 원문을 밝힌다.

④ 각주

ㄱ) 각주는 1), 2) 등으로 표기한다. 단, 사사표기는 첫 번째 페이지 최초의 각주로 글머리표(■)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논문 전체에 대한 보충 설명은 * 등의 기호를 사용한다.

ㄴ) 각주의 서지사항은 ‘저자(혹은 편자) 연도, 쪽수’(영미권 저자의 경우 last name 연도, 쪽수) 순으로 간략히 표기하고, 온전한 서지 정보는 참고문헌에 기입한다.

예) 홍길동 2017, 140; Robertson 2020, 25-28; 北澤菜月 2013, 11; 叶少勇 2011, 112.

ㄷ) 자신의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줄고(가) 아닌 ‘자신의 성명’으로 표기한다.

- ㄹ) 여러 권의 저서나 논문들을 함께 표기할 때는 단락을 나누지 말고 쌍반점(:)으로 연결하고 쌍반점 앞에 마침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홍길동 2017, 140; 이수진 2019, 24-25.
- ㅁ) 페이지는 쪽수만 표기하고, 범위는 “-”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2017, 140; 홍길동 2017, 140-142; 홍길동 2017, 44를 참조할 것.
- ㅂ) 바로 직전 각주의 자료를 다시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한국어 자료인 경우: 예) 위의 책, 23-25; 위의 논문, 45.
 - 영어 자료인 경우: 예) Ibid., 27.
 - 앞의 각주에서 표기한 자료를 뒤의 각주에서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ㄴ’항의 예를 따른다.
- ㅅ) 타인의 저작물에서 원문 또는 내용을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재인용이라고 표기한다.
예) ○○○ 2013, 100에서 재인용; Robertson 2020, 25-28에서 재인용.
- ㅇ) 2인 이상 공저자의 저서 및 논문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3인 이하 공저의 경우, 저자를 모두 표기하고 4인 이상의 경우 ‘대표저자 외 ○인’만 표기한다. 단, 저자별 저술이 명확한 경우에는 인용 저자만 표기한다.
예) 홍길동·이수진 2013, 30; 이수진 외 3인 2010, 23-25.
예) Ingholt and Lyons 1957, 25; Anderson, Robertson and Christopher 2018, 25; Allchin, et al. 2019, 150.
- ㅈ) 표준판본이 합의된 동아시아 원전 자료는 아래의 용례에 준하여 표기한다.
예) 『三國遺事』卷5, 義解5, 寶壤梨木 條.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21년 條.
『世宗實錄』권122, 30년 12월 25일.
- ㅊ) 번역서 및 번역논문은 번역본에 기재된 저자명과 역자명을 제시하고 번역본의 출판연도, 쪽수를 표기한다. 단, 저자가 불명확하거나 1차문헌의 [편]역서의 경우 [편]역자명만 기재해도 무방하다.

- 예) 털만 페터, 김성철 역 2009, 99; 미즈노 고겐, 이미령 역 1996, 40; 대립 역 2018, 10; 백련선서간행회 편역 1989, 47-48; MacDonald, ed. and tr. 2015, 100; van der Leeuw, tr. 1963, 567-569.
- ㄱ) 학술지 이외의 정기간행물(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은 ‘ㄴ’항의 예에 따라 표기한다.
- ㄷ) 한역대장경(漢譯大藏經) 및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敎全書)
- 대정신수대장경의 경우, 대정신수대장경 텍스트 번호, 대장경권수, 쪽수, 단, 줄수를 제시하고, 원문은 콜론(:) 뒤에, 번역문을 제시할 경우 괄호 안에 쌍따옴표하여 표기한다.
- 예) 『入大乘論』(T1634, 32:36b18-19): 원문. (“번역문.”)
- 한국불교전서의 경우, 한글불교전서 텍스트 번호, 전서 권수, 쪽수, 단, 줄수를 제시하고, 원문은 콜론(:) 뒤에, 번역문을 제시할 경우 괄호 안에 쌍따옴표하여 표기한다.
- 예) 『誠初心學人文』(H72, 4:738c1-5): 원문. (“번역문.”)
- ㄹ) 팔리어나 범어 문헌, 티베트대장경(P : Peking판, D : Derge판, N : Narthang판, C : Cone판)을 포함한 티베트 문헌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원문은 콜론(:) 뒤에, 번역문을 제시할 경우 괄호 안에 쌍따옴표하여 표기한다. 로마나이즈된 원문은 이탤릭체한다.
- 예) DN II. 135, 2-3: 원문. (“번역문.”) [예의 의미: *Dīgha-nikāya*, Vol. 2, p. 135의 2번째 줄에서 3번째 줄까지]
 Sn 342계 [예의 의미: *Suttanipāta* verse 342]
 Vism 542, 4-7. [예의 의미: *Visuddhimagga*, p. 542의 4번째 줄에서 7번째 줄까지]
- 예) P103, 15a2-3: 원문. (“번역문.”) [예의 의미: Peking판 티베트대장경 불전 No. 103, 15면 상단, 2번째 줄에서 3번째 줄까지]
- ㅎ) 인터넷 정보의 인용은 학술적 의미가 있는 사이트로 하고, 웹사이트 작성자와 작성연도가 있을 경우, 아래의 예 1과 같이 작성자 작성연도, URL 주소(검색일자)의 순으로 표기하고, 작성자와 작성연도가 없을 경우, 예 2와 같이 ‘자료명’ 혹은 웹사이트 이름, URL 주소(검색일자)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1) 혜암 2013, <https://www.youtube.com/watch?v=KN1dk50IGvY>
(2021.6.25. 검색).

예 2) ‘일타대중사 법문 살아오신 이야기 1,’ <https://www.youtube.com/watch?v=KN1dk50IGvY> (2021.6.25. 검색);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2023.12.14. 검색).

⑤ 참고문헌(영문 병기)

가. 작성 기본 규칙

- ㄱ) 참고문헌에는 본문 및 각주에서 인용한 문헌은 모두 정리·표기하고, 인용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ㄴ) 참고한 문헌은 약호 및 일차 문헌, 이차 문헌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ㄷ) 각 항목 앞에 제시되는 저자(편자, 역자)의 이름은 국적을 불문하고 “성, 명”의 순서로 로마자 표기하고,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단, 국문 이름의 로마자 표기는 원저자의 표기를 따른다.
- ㄹ) 저자의 성(last name)은 대문자로 표기한다. 동양권 저자의 원어 이름은 로마자로 표기된 이름 뒤 한 칸 띄어 표기한다. 서구권 저자의 경우, 저자가 2인 혹은 3인일 때 아래의 예 2와 같이 두 번째 저자부터 “명(first name) 성(last name)”의 순서로 표기한다. 저자가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예 3과 같이 ‘대표 저자의 성, 명, et al.’으로 표기한다.

예 1) KIM, Sun seok 김순석. 2020. 「3·1 운동기 한국 불교계의 역동성과 현재적 반성」 (“Dynamics and Current Reflections of Korean Buddhism in the March 1st Movement”),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62, 161-184.

예 2) DECETY, Jean and Jason M. COWELL 2014. “Friends or Foes: Is Empathy Necessary for Moral Behavior?”,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ol. 9, no. 4, 525-537.

예 3) CHON, Kyum koo, et al. 전경구 외 4인. 2021. 「다면적 분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phasic Anger Inventory”),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26, no. 1, 125-144.

- ㉑) 기본적인 기술 순서는 단행본의 경우 ‘성, 명, 출판년도, 출판물 제목, 출판지역: 출판사명.’의 순으로, 학술지 논문의 경우 ‘성, 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지, 권호, 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나. 약호 및 1차 문헌의 표기

㉒) 작성하는 논문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㉓) 본문에서 사용한 약호 및 문헌 정보를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DN *Dīgha-nikāya*, ed. by T. W. RHYS DAVIDS and J. E. CARPENTER, 3 vols.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75.

Mil *Milindapañha*, ed. by V. TRENCKNER.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62.

MN *Majjhima-nikāya*, ed. by V. TRENCKNER and R. CHELMERS, 3 vols.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79, 1925 & 1951 respectively (reprints).

『大智度論』 T1509.

T *Taishō shinshū daizōkyō* 大正新修大藏經, ed. by TAKAKUSU Junjirō 高楠順次郎 and WATANABE Kaikyoku 渡邊海旭, 100 vols. Tōkyo: Daizōkyōkai, 1924-1935.

- ㉔) 원전의 출처가 일반 출판물이 아니거나 원전이 편집본에 포함된 경우 (약호의 원제와 함께) 편자명과 발행 연도만 제시하고, 해당하는 완전한 서지 정보를 2차 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Kāśikā ŚĀSTRĪ 1926-1929 참조.

MSVSV *Mahāsaṃghika-vināya-saṃghabheda-vastu*. GNOLI 1977-1978 참조.

[2차 문헌에서]

ŚĀSTRĪ, K. Sāmbaśiva, ed. 1926-1929. *The Mīmāṃsāsīloka-vārtika with the Commentary Kāśikā of Sucarita-miśra*, 2 parts, Trivandrum:

The Government of Her Highness the Maharani Regent of
Travancore.

GNOLI, Raniero, ed. 1977-1978. *The Gilgit Manuscript of the
Saṅghabhedavastu: Being the 17th and Last Section of the
Vinaya of the Mūlasarvāstivādin*, 2 parts, Rome: IsMEO.

다. 국문 문헌의 표기 방식 (McCune-Reischauer 표기법 사용)

ㄱ) 한글 원제목에 표기한 후, 한 칸 띄어 괄호 내에 해당 자료의 공식 영문을 제시하되, 공식 영문이 없을 경우에는 임의 번역을 표기하고 윗 첨자 별표(*)를 부가한다. 단행본 저서나 학술지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논문의 경우 “ ”로 표기한다.

예) KIM, Sanghyun 김상현. 2000. 『元曉研究』 (**A Study on Wŏnhyo*),
Seoul: Minjoksa 민족사.

예) KIM, Sun seok 김순석. 2020. 「3·1운동기 한국 불교계의 역동성과 현재적 반성」 (“Dynamics and Current Reflections of Korean Buddhism in the March 1st Movement”),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62, 161-184.

ㄴ) 출판기관은 공식 영문을 제시하고 한글을 병기한다. 공식 영문이 없을 경우 맥퀸 라이샤워 방식으로 음사하여 표기한다.

예) CHEON, Jae seong 전재성, tr. 2011. 『숫타니파타』 (*Suttanipāta*),
Seoul: Korea Pali Text Society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예) Society of Modern Western Philosophy 서양근대철학회, ed.
2010. 『서양근대윤리학』 (**Modern Western Ethics*), Seoul:
Ch’angbi 창비.

라. 로마자 문헌의 표기 방식

ㄱ) 기본적으로 위 ‘가’항의 ㄴ)의 순서에 따른다.

ㄴ) 학술지 논문의 경우

예) FERRARO, Giuseppe. 2020. “Horror Vacui: Metaphysical Yogācāra Reaction to Madhyamaka Antimetaphysical Emptiness,”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vol. 48, 401-426.

ㄷ) 단행본에 삽입된 논문의 경우

예) MORIYAMA, Shinya. 2013. “On the Role of *Abhyupagama* in Dharmakīrti’s Scripturally Based Inference,” in *Scriptural Authority, Reason and Action*, ed. by Vincent ELTSCHINGER and Helmut KRASSER,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183-208.

ㄷ) 단행본의 경우

예) GOLDMAN, Robert P. and Sally J. Sutherland GOLDMAN. 1999. *Devavāṇīpravesikā: An Introduction to the Sanskrit Language*,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마. 일본어 및 중국어 문헌의 표기 방식 (일본어는 Hepburn 표기법 사용; 중국어는 Pinyin 표기법 사용)

ㄱ) 국문 문헌의 표기 방식을 준용한다.

예) KURAMOTO, Shōtoku 倉本尚徳. 2018. 「靈裕の享年—『続高僧伝』と石刻資料の比較— (“Lingyu’s Death: A Comparison of the *Xu gaoseng zhuan* and a Stone Inscription”), 『印度學佛教學研究』 (*Journal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vol. 66, no. 2, 510-515.

예) LIAO, Minghuo 廖明活. 1985. 『嘉祥吉藏學說』 (**Jiaxiang Jizang’s Thought*), Taipei: Taiwan Xuesheng 臺灣學生.

바. 번역본의 표기 방식

ㄱ) 로마자 문헌의 한글 번역본인 경우, 번역서에 기재된 저자명과 역자명을 로마자와 함께 병기한다. 단, 저자가 불명확하거나 일차 문헌의 [편]역서의 경우 [편]역자명만 기재해도 무방하다. 번역본의 제목 뒤에 한 칸 띄어 괄호 내 원제목을 제시한다.

예) VETTER, Tilmann 틸만 페터, KIM Seong Cheol 김성철, tr. 2009. 『초기불교의 이념과 명상』 (*The Ideas and Meditative Practices of Early Buddhism*), Seoul: CIR 씨아이알.

예) DAELIM 대림, tr. 2018. 『청정도론 3』 (*Visuddhimagga 3*), Ulsan: Center for Early Buddhist Studies 초기불전연구원.

ㄴ) 동양권 문헌의 한글 번역본인 경우, 위의 방식을 준용하되 저자

명 뒤 괄호 내 원래 이름을 표기하고, 원제목 뒤 한 칸 띄어 []
내영어 번역을 제시한다.

예) Mizuno, KŎGEN 미즈노 고겐 (水野弘元), LEE Miryŏng 이미령,
tr. 1996. 『경전의 성립과 전개』(『經典その成立と展開』[**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criptures*]), Seoul: Sigongsa 시공사.

예) SASAKI, Shizuka 사사키 시즈카 (佐佐木閑), LEE Ja Rang 이자랑,
tr. 2007. 『인도불교의 변천』(『インド仏教変移論 / なぜ仏教は
多様化したのか』[*On the Transformation of Indian Buddhism: Why
Did Buddhism Become Pluralistic?*]), Seoul: Dongguk University
Press 동국대학교 출판부.

예) Paengnyŏn Sŏnsŏ Kanhaenghoe 백련선사간행회, ed. and tr.
1989. 『임간록(林間錄)』(**Record of the Chan Grove*), Kyŏngnam:
Changgyŏnggak 장경각.

ㄷ) 로마자 문헌의 로마자 번역본인 경우, 로마자 문헌의 표기 방
식을 준용한다.

예) MACDONALD, Anne, ed. and tr. 2015. *In Clear Words: The
Prasannapadā, Chapter One*,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바. 일반학술지 외 정기간행물(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자료 표기 방법
기본적으로 국문 자료의 표기 방식을 준용한다. 《간행물명》(영어
명) 뒤 발행일자를 표기하고,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경우 페이지 대신
URL주소와 검색일자를 표기한다.

예) LEE, Byungwook 이병욱. 2020. 「원불교 무시선과 사회참여」
(*“Won-Buddhism and Social Participation”), 《경기일보》
(*Kyeonggiilbo*), 2020.11.18., <https://www.kyeonggi.com/2329419>
(2022.3.6. 검색).

예) NAMGYAL, Dadul. 2020. “How Does a Buddhist Monk Face
Death?”, *The New York Times*, 2020.2.22., <https://www.nytimes.com/2020/02/26/opinion/buddhist-monk-death.html> (2021.7.13.
검색).

사. 인터넷 자료

기본적으로 국문 자료의 표기 방식을 준용한다. 웹사이트 작성자, 작성연도, ‘자료명,’ 웹사이트 이름, URL 주소 (검색일자)의 순으로 해당하는 항목을 가능하면 모두 표기한다.

예) Hyeam 해암. 2013. ‘일타대중사 법문 살아오신 이야기 1’ (The Teachings and Life Stories of Ilta Daejongsa 1), <https://www.youtube.com/watch?v=KN1dk50IGvY> (2021.6. 25. 검색).

예) Rhi, Ki-yong 이기영. ‘원효’ (Wŏnhyo),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0908> (2020.12.14. 검색).

예) Han’guksa Database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atabase of Korean History), <https://db.history.go.kr/> (2023.12.14. 검색).

⑥ 영문 초록(Abstract)과 키워드(Keywords)

가. 논문에는 반드시 국문 초록에 상응하는 영문 초록(논문 제목과 필자 이름 영문 표기 포함)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분량은 200단어에서 300단어 내외로 한다.

나. 국문 주제어에 대응하는 7개의 영문 키워드를 영문 초록 끝에 첨부한다.

3. 정기간행물의 발행일

본 학회에서는 학술지를 매년 4회 발행한다. 1회는 3월 31일, 2회는 6월 30일, 3회는 9월 30일, 4회는 12월 31일로 한다.

4. 투고 논문 작성예(각주와 참고문헌)와 논문심사서

<논문 작성예>

한국의 불교학 연구사 - 회고와 전망 -

홍길동

○○대학교 ○○학과 ○○ [소속과 직위]

abcd@kkk.ac.kr

- I. 머리말
- II. 불교학이란 무엇인가
- III. 근현대의 불교학 연구
- IV. 한국 불교학의 방향성
- V. 맺음말

국문 초록 (800-1000자 이내로 작성)

[국문 초록 내용]

주제어(7개 내외)

I. 머리말

지금까지 불교학은이다.¹⁾ 본 논문은에 관해 고찰한 것²⁾으로
....이다.³⁾

1) 홍길동 2019, 121-134. [예의 의미: 논문 및 저서의 표기]; 遠藤祐介 2015, 7-10. [예의 의미: 일본어 논문 및 저서의 표기]; 대림 역 2018, 111-113. [예의 의미: 1차 문헌 번역서의 표기]; 털만 페터, 김성철 역 2013, 111-113. [예의 의미: 2차 문헌의 한글 번역서의 표기]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은

이에 반해 구나마티(Gunamati, 德慧, 생몰년 미상)의 화택의 비유[火宅喩]를

II. 불교학이란 무엇인가

1. 절 제목

1) 항 제목

불교학은 ...

~~이다.⁴⁾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일타⁵⁾는 ...이다.에 따르면이다.

(1) 목 제목

.....

가.

2. 절 제목

III. 근현대의 불교학 연구

IV. 맺음말

-
- 2) Robertson 2020, 25-28.(예의 의미: 서양어권 논문 및 저서의 표기)
- 3) Ibid., 24.(예의 의미: 바로 위 각주에서 인용한 영어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 위의 논문, 170.: 위의 책, 23-25.(예의 의미: 바로 위 각주에서 인용한 한글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
- 4) 『入大乘論』(T1634, 32:36b18-19): 원문. (“번역문.”)[예의 의미: 대정신수대장경 1634번 경전, 대장경 권수 제32권 36쪽 중단 18째 줄에서 19째 줄까지]; 『誠初心學人文』(H72, 4:738c1-5): 원문. [예의 의미: 한국불교전서 72번 불서, 전서 권수 제4권 738쪽 하단 1째 줄에서 5째 줄까지]; DN II. 135, 2-3: 원문. [예의 의미: 팔리대장경 *Digha-nikāya* Vol.2, p.135의 2번째 줄에서 3번째 줄까지]; P103, 15a2-3: 원문. [예의 의미: Peking판, 타벳 불전 No.103, 15면 상단, 2번째 줄에서 3번째 줄까지]; 『三國遺事』卷5, 義解5, 寶壤梨木條. [예의 의미: 표준 합본이 합의된 동아시아 원전자료의 경우]
- 5) 헤엄 2013, <https://www.youtube.com/watch?v=KN1dk50IGvY> (2021.6.25. 검색). [예의 의미: 인터넷 자료 항목의 표기]

<참고 문헌 작성예>

참고 문헌 REFERENCES

◆ 약호 및 일차 문헌 Abbreviations and Primary Sources

- DN *Dīgha-nikāya*, ed. T. W. RHYS DAVIDS, and J. E. CARPENTER, 3 vols.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75.
- Kāśikā* ŚĀSTRĪ 1926-1929 참조.
- Mil *Milindapañha*, ed. by V. TRENCKNER.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62.
- MN *Majjhima-nikāya*, ed. by V. TRENCKNER and R. CHELMERS, 3 vols.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79, 1925 & 1951 respectively
(reprints).
- T *Taishō shinshū daizōkyō* 大正新修大藏經, ed. by TAKAKUSU Junjirō
高楠順次郎 and WATANABE Kaikyoku 渡邊海旭, 100 vols. Tokyo:
Daizōkyōkai, 1924-1935.
- 『大智度論』 T1509.

◆ 이차 문헌 Secondary Literature

- BUDDHADĀSA, Bhikkhu. 1992. *Patīccasamuppāda-Practical Dependent Origination*,
Bangkok: The Dhamma Study & Practice Group.
- HAYES, Richard P. 1983. “Jinendrabuddhi,”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103, no. 4, 709-717.
- Center for Research on Korean Bhikkhunis 한국비구니연구소, eds. 2007. 『한
국비구니수행담록』 (*Korean Bhikkhuni Practice Book*), Seoul:

Ttūranč'ulp'ansa 뜨란출판사.

- CHO, Joon-ho 조준호. 2009. 「무명(無明)과 공(空) - 욕망의 비실재성에 대한 불교적 통찰」 (“Ignorance and Emptiness: Buddhist Insight into the Unreality of Desire”),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24, 177-219.
- CHON, Kyum koo, et al. 전경구 외 4인. 2021. 「다면적 분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phasic Anger Inventory”),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26, no. 1, 125-144.
- DAELIM 대림, tr. 2018. 『청정도론 3』 (*Visuddhimagga 3*), Ulsan: Center of Early Buddhist Studies 초기불전연구원.
- ENDŌ, Yūsuke 遠藤祐介. 2015. 「六朝期における頓悟説の展開: 劉虬と蕭衍の頓悟説」 (“Development of Sudden Enlightenment in the Liuchao Period : Sudden Enlightenment by Liuqiu and Xiaoyan”), 『武蔵野大学仏教文化研究所紀要』 (*Journal of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Musashino University*), vol. 31, 1-17.
- FENG, Huanzhen 馮煥珍. 2003. 「淨影寺慧遠判教觀的再考察」 (*“The Reexamination of the Jingying Si Huiyuan’s View on the Classification of Doctrines”), 『佛學研究中心學報』 (*Journal of the Center for Buddhist Studies*), vol. 8, 73-102.
- Han’guksa Database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atabase of Korean History), <https://db.history.go.kr/> (2023.12.14. 검색).
- Hyeam 혜암. 2013. ‘일타대중사 범문 살아오신 이야기 1’ (The Teachings and Life Stories of Ilta Daejongsa 1), <https://www.youtube.com/watch?v=KN1dk50lGvY> (2021.6.25. 검색).
- JHA, Ganganatha, tr. 1933. *Śābara-bhāṣya*, Baroda: Oriental Institute.
- LEE, Byungwook 이병욱. 2020. 「원불교 무시선과 사회참여」 (*“Won-Buddhi sm and Social Participation”), 《경기일보》 (*Kyeonggiilbo*), 2020.11.18., <https://www.kyeonggi.com/2329419> (2022.3.6. 검색).
- OLENDZKI, Andrew 앤드류 올렌즈키, PARK Jae yong 박재용 and KANG Byung

hwa 강병화, trs. 2018. 『붓다 마인드』 (*Unlimiting Mind*), Kyeonggi: Olivegreen 올리브그린.

SAKURABE, Hajime 사쿠라베 하지메 and UHEYAMA Shunpei 우에야마 슌페이, CHUNG Hoyoung 정호영, tr. 1989. 『아비달마의 哲學 - 존재의 분석』 (**Abhidharma Philosophy- An Analysis of Existence*), Seoul: Minjoksa 민족사.

ŚĀSTRĪ, K. Sāmbaśiva, ed. 1926-1929. *The Mīmāṃsāslokavārtika with the Commentary Kāśikā of Sucaritamīśra*, 2 parts, Trivandrum: The Government of Her Highness the Maharani Regent of Travancore.

Abstract

The History of Buddhist Studies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HONG, Gil-Dong
○○
○○ Department, ○○ University

[영문초록 내용] (200-300 단어 이내로 작성)

Keywords (7개)

『불교학연구』 게재신청논문 심사항목

논문심사 항목						
평가내용(항목에 따라 배점범위 내에서 배점하시고 배점기준에 ○표해 주십시오)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수정 불필요	일부 수정필요	적절한 수정필요	대폭 수정필요	재구성/ 재집필	
주제의식의 선명성과 논문구성의 명료성	14~15	11~13	8~10	6~7	1~5	15
선행연구의 이해와 연구의 독창성	14~15	11~13	8~10	6~7	1~5	15
논거의 타당성과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정확성	14~15	11~13	8~10	6~7	1~5	15
문헌해석[자료분석]의 정확성 및 기술의 논리성	14~15	11~13	8~10	6~7	1~5	15
불교연구의 유용성 및 기여도	14~15	11~13	8~10	6~7	1~5	15
불교학연구 원고작성 요령기준의 준수 및 용어[문장]사용의 정확성(오타자 포함)	14~15	11~13	8~10	6~7	1~5	15
국문, 영문초록의 분량과 내용의 정확성	10	8~9	6~7	6~7	1~5	10
총 점						100
종합평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95점 이상	85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 __2019년 6월 10일 개정
- __2019년 12월 16일 개정(저자 소속, 직위 명기 규정 신설)
- __2020년 3월 16일 개정(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규정 신설)
- __2020년 6월 12일 개정(‘게재 불가’ 판정 논문의 재투고 횟수 제한 규정 및 참고문헌 영문명기 규정 신설)
- __2020년 9월 07일 개정(‘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 불가’ 판정 논문의 재투고 횟수 제한 규정 보완)
- __2020년 12월 14일 개정(‘탈락논문의 이의제기’ 규정 보완 및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 방식 변경)
- __2021년 3월 15일 개정(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 방식, 심사항목 보완)
- __2024년 1월 15일 개정(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 방식 보완)